

2002 학 년 도

碩士學位 請求論文

# 열린예배에 대한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비판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神學研究科 實踐神學專攻

朴 勝 範

# 열린예배에 대한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비판

指導 박종근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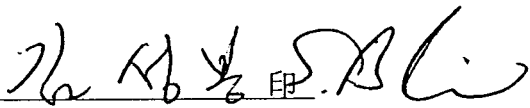
2002年 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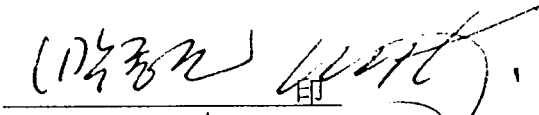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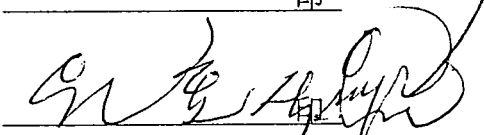
神學研究科 實踐神學專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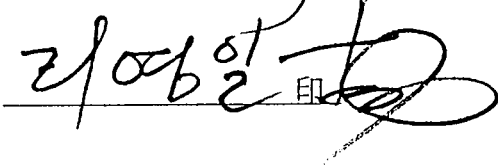
朴 勝 範

박승범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김성봉 印 

審査委員 (박정민) 印 

審査委員 위훈 印 

審査委員 리영일 印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2002 年 6 月

# 謝 辭

본 論文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지도

하여 주신 박종근 교수님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02년 월 일

박 승 범 올림

# 목 차

I . 서 론 -----	1
A. 문제제기 -----	1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4
II . 예배의 기본적인 원리 -----	5
A . 예배의 정의란 -----	5
1 . 예배의 하나님 중심성 -----	6
2 . 예배의 그리스도 중심성 -----	6
3 . 예배의 교회적, 성령적, 표징적 특성 -----	8
4 . 예배의 신앙적, 선교적, 종말론적 특성 -----	9
5 . 계시와 응답 -----	10
6 . 본질적으로 공동 행위인 예배 -----	11
7 . 예배와 증거 -----	11
III . 칼빈주의 예배의 원리 -----	12
A . 칼빈주의적 예배의 이해 -----	12
B . 칼빈주의적 예배의 특성 -----	14
C . 칼빈주의적 예배의 강조점 -----	15
IV . 예배의 성경적 고찰 -----	18
A . 구약시대 -----	18
1 . 족장시대의 예배와 제사 -----	18
2 . 모세시대의 예배와 제사 -----	18
3 . 이스라엘 왕국시대의 예배와 제사 -----	19
4 . 회당예배 -----	19
B . 초대교회의 예배 -----	20
1 . 초대교회의 예배 -----	20
2 . 사도이후의 예배 -----	20
C . 초대교회이후의 예배 -----	21
1 . 초기 로마교회의 예배 -----	21
2 . 로마카톨릭교회의 예배 -----	21
3 . 종교개혁과 예배 -----	22
4 . 영국 잉글리칸 교회의 예배 -----	22

5. 근세교회의 기독교 예배 -----	23
6. 서구 개신교 예배와 현재 -----	23
V. 한국교회 예배 고찰 -----	24
A. 한국교회 예배의 성격 -----	24
B. 한국교회 예배실제의 제 유형 -----	25
1. 전통적인 교회의 예배 유형 -----	25
2. 선교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문화 유형적인 예배 -----	27
3. 도시의 문화적 환경에 나타나는 예배의 변화 -----	27
4. 음악을 중심한 예배의 새로운 변화 -----	27
VI. 빈야드 예배 분석 -----	29
A. 빈야드 운동이란 -----	29
B. 빈야드 운동의 문제점 -----	30
VII. 열린 예배에 대하여 -----	32
A. 구도자 예배란 무엇인가 -----	32
1. 열린 예배의 기원 -----	32
2. 구도자예배의 성경적 근거 -----	32
3. 구도자예배의 특징들 -----	33
B. 열린 예배의 신학적 이해와 영성 -----	34
C. 구도자예배의 미국적 배경 -----	35
D. 윌로우크릭 교회의 구도자예배 -----	36
E. 구도자예배가 가진 예배적 약점 -----	37
VIII. 성경이 말하는 예배 -----	39
IX. 결    론 -----	42
A. 요약 -----	42
B. 제언 -----	45
참고문헌 -----	46

# I. 서 론

## A. 문제제기

‘무엇이 예배인가?’ 하는 물음을 묻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예배란 종교적인 사람들이 일요일에 행하는 의식의 일종인가? 예배란 노래하고 싶도록 만드는 유쾌한 감정인가? 특별한 감정적 기질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활동인가? 결국은 설교로 귀착되는 교회의 모든 공적 활동을 뜻하는 것인가? 예배는 시끌벅적해야 하는가 아니면 조용해야 하는가 또 오르간과 성가대가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 기타와 드럼이 있어야 하는가?

예배가 어떻게 인도되어야 하느냐는 문제에 관한 한 당대의 분위기와 취향, 교파에 따라 의견이 천차만별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찬송가만을 좋아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은 최근의 찬송곡 만을 좋아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1662년에 채택된 기도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고, 자유롭게 손을 치켜들고 춤을 추지 못하면 교회에 나가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부인이 그러한 모습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려고 하지 않을 남편도 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예배하며 살아간다. 예배의 대상이 영웅, 재물, 성공, 쾌락, 정치적 목적, 손으로 아로새긴 우상 혹은 자기 자신이든 간에 우리의 삶과 행동의 방식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우리 자신을 쏟아 넣는지를 자명하게 드러낸다.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적 동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타락한 인류인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바꿔치기 했다는데 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한다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심하고 그분의 권위에 맞서는 모든 것들을 끌어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예배의 중심은 우리의 재주와 재물은 물론이고 바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오늘 현대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모형은 구약시대의 성전인데 회당예배와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예배, 그리고 중세 종교개혁시대의 예배를 거쳐 순하게 변모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예배의식은 계속 변모되어갈 것이다.

예배가 이처럼 변모되어 가는 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를 위한 예배자들의 긍정적인 노력 때문이다. 또 하나는 세속화 내지는 타락화한 때문이다.

현대교회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영적 예배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해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현대교회의 예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율법과 제사로 회귀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중세 때의 부패한 교회처럼 세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sup>1)</sup>

한국교회의 예배는 한국교회 초기 개신교 선교사들이 미국의 낭만주의시대와 부흥운동 시대의 예배전통을 한국에 심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청도교들의 성공회 기도회 순서나 미국의 부흥운동 시절의 부흥집회식 예배순서를 받아서 그것을 율법과 같이 성실히 지켜왔다.

그후 미국교회는 꾸준히 예배 갱신 운동을 일으켜서 초대교회와 종교 개혁자들의 예배전통을 회복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한국교회들은 100여 년 전에 전해 받은 예배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교회는 1960년대 이후 유학에서 귀국한 예배학 교수들이 유럽개혁교회 예배와 미국장로교회 예배를 가르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평양신학교 세대에서 장로회신학교, 총회신학교로 이어지는 한국장로교회 목회현장에서의 예배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예전적이며 말씀과 성찬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 예배가 되고 말았다. 최근 한국교회도 총회 차원에서 예배 갱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예전적 예배를 상당히 회복하고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한국교회 예배 갱신운동은 세계교회의 예배 갱신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하면서 두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예전적 예배의 회복운동과 열린 예배운동이 그것이다.<sup>2)</sup>

---

1) 이의웅,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예배", 『빛과 소금』, 서울: 두란노서원, 1992년 7월호(통권 88호).

2) 손인웅, "예전적 예배를 회복한다", 『월간목회』, 서울: 월간목회사, 1998년 4월호.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의 일각에서도 열린 예배(구도자의 예배)를 추구하며, 기존의 전통적 예배의 틀을 파괴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의 조상은 청교도들과 18,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전도운동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것은 구도자들을 위한 특별전도집회로서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성교회의 정식 예배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왜냐하면 예배는 회중들의 흥을 돋우는 행사가 아니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예배를 주장하고 있는 자들은 사회가 경제적으로 변하고, 국가행정이 중앙집권적 구도에서 지방분권적 구조로 이동하며, 컴퓨터가 생활 중심이 된 사이버 문화가 도래함으로써 현대인의 사고구조와 가치관이 크게 달라졌고, 이렇게 달라진 삶이 예배까지도 새롭게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예배의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예배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말한다.<sup>3)</sup>

또한 장로교 목사들 가운데 장로교식 예배 형식이 너무 진부하므로 예배의 갱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sup>4)</sup> 여기서 예배의 갱신이라고 할 때 보통 예배 형식의 갱신을 의미하는데, 예배의 본래적 형식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배는 성경 적이어야 하고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예배의 갱신에는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하며, 그것은 신학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예배의 형식은 교회의 형태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배는 신앙과 신학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신앙과 신학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배의 갱신은 교회의 전통과 신학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학적인 명분이나 설명 없이 예배의 갱신은 예배의 맹목적인 수정일 뿐이며, 그것은 곧 신학의 수정을 초래한다. 예배 형식의 갱신이 반드시 생동성 있는 영적 예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예배가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진정한 예배 갱신은 우리의 삶의 갱신과 개혁을 포괄하는 것이다.

3)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 1998, p.62.

4) 김영재, 『교회와 예배』, 수원: 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p.39.

다시 말하며, 예배 형식의 갱신에는 삶의 개혁이 동반되어야 하고 밑받침되어야 한다.

## B.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교회에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열린예배에 대해서 이미 발표된 서적들을 근거로 예배의 기본적인 원리를 살펴보고, 또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고찰을 통하여 흐름을 살펴보고, 칼빈주의적 예배를 고찰하고 한국교회의 예배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열린 예배에 대하여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예배를 살펴보고 예배 갱신을 추구하는 열린 예배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시대가 흐르고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올바른 예배의 형식과 의미가 퇴색되지 아니하도록 부족하지만 이 논문을 통해서 방법을 제시하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한국교회의 바른 예배를 정립하는데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 II. 예배의 기본적인 원리

### A. 예배의 정의란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말은 본래 앵글로색슨어(語)의 “weorthscipe”에서 유래했는데, 그것이 “worship”란 말로 된 것이다. 이 말의 뜻은 “가치를 돌린다”(to ascribe worth)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우리말에는 ‘예배(禮拜)’란 예를 다하여 절한다는 낱말의 의미를 가진다.<sup>6)</sup> 루터는 “만일에 그대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대는 마땅히 그에게 예배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였다.<sup>7)</sup>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의 인정이 표현되는 것일까? 그것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보통 표현되는 것과 같은 방법- 곧 헌물을 통하여 표현된다.

구약시대에 있어서의 히브리인의 예배는 “희생제사”란 말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문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예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예배, 곧 예수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 교회의 예배이다. 이 예배는 동물의 희생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하여 폐지되고 “완성”되었다. 따라서 희생 제사는 십자가의 표상에 불과한 것이 되어 버렸다. 새로운 인간의 대표가 되신 그리스도가 전 인류를 대신하여 “충분하고 완전하고 흠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물이란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찬미의 제사...이는 그 이름을 증거 하는 입술의 열매”(히 13:15)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 곧 다름 아닌 우리를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롬12:1).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을 갖고 의도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의 네 가지 기본 원리를 살펴본다.

---

5) R. 암바,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경명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4.

6)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솔로몬, 1993, P.23.

7) J.s. Whlax, What is a Living Church? p.41.

## 1. 예배의 하나님 중심성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배의 이해와 기본적임을 알 수가 있다. 단지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다. 하나님은 높으시며, 거룩하시며, 높이 들리신 분이시다. 그 분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세상의 왕이시며, 만물의 주이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한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갖기를 희망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더욱이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고 살리기 위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고 역사 가운데 활동하셨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한 사랑으로 대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이런 맥락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들을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부름을 받은 것이다(벧전 2:9). 이런 견지에서 볼 때 교회가 주로 예배하는 공동체, 즉 성부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성자의 기이한 사역들을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임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sup>8)</sup>

## 2. 예배의 그리스도 중심성

예배는 그의 구속사역 때문에 성부의 영원한 찬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교회의 예배는 성경을 통해 명백히 제시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사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도록 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신앙과 항상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

8) Webber, Robert E. 『예배학』, 김지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p.13.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기독교의 주요 공리(axiom) 가운데 하나이다(요3:16; 엡2:8-10). 하향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 되고, 상향적으로 보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의미한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구원의 구속 사역을 축하하는 예배인 만큼 이 같은 하향운동과 상향 운동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곳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완전한 사역이 바로 성부를 진정으로 경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는 성부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에 감사하여 성부께 감사한다. 성자의 사역이 성부께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자신을 드린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성자를 통한 찬양과 감사의 현상이어야 한다. 초대 교회가 기도를 할 때면 항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도 다 이에 연유한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 안에서, 지금과 장래와 영원토록 그를 통해 그리고 그와 함께 당신께 영광과 권능이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다.

이외에도 기독교 예배에서 그리스도가 차지하는 위치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면에서 중재 역할을 하실 뿐 아니라, 성부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 주는 면에서도 중재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엡 1:13-14; 벧전1:3). 초대 교회가 그리스도를 모든 성례의 최고 집행장(長)으로 인식한 것도 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세례를 베푸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시며, 성찬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에 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결국 예배에서의 그리스도의 중심의 기능은 중개자로서의 기능인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예배를 성부께 중개하며, 성부로부터 나오는 구원과 온갖 축복을 예배자들에게 중개하신다.<sup>9)</sup>

---

9) Ibid. p.14.

### 3. 예배의 교회적, 성령적, 표징적 특성

하나님께 드리는 공중 예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가시적, 유형적 표징들을 통하여 구속사역을 선포하고 실행에 옮기는 행위이다. 예배는 교회 적이다. 즉 예배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행위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 자체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행위들을 반복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교회의 구원이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행위들을 선포하고, 반복하고, 재 반복하며, 재창조해야 한다.

예배의 공동체적 특징은 특별히 성찬 안에 강조되어져 있다. 여기에 전 교회가 함께 모이는 것이다. 교회의 공중 예배는 “두세 사람이 (예수의)이름으로 모이는” 때에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마18:21).

더욱이, 예배는 성령적이다. 즉 예배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이 예배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신약신학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 사이의 실제적 상호작용 - 두 영 사이에 일어나는 일종의 만남- 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를 돕는 하나님의 영의 모습을 시적인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롬8:15, 26-27). 예배에서의 성령의 본질적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데 있다. 따라서 빌립보서 3:3의 “하나님의 성령으로(by) 예배하며”에서 “으로”(by)는 수단의 여격인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적인 교회는 복음의 내용을 재 상연한다. 교회는 세상과 세상 안에서의 우리의 삶에 해석의 원리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 복음의 위대한 주제들을 선포하고 행위로 표현한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그것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행위로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 존재 자체의 핵심(폭풍의 눈)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속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드라마이다.

예배의 “표징적특성”은 무엇보다도 성례, 특히 세례와 성찬과 관련을 맺고 있다. 여기서 세례의 물과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존 칼빈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의 표징이요, “보장”인 것이다. 이 표징들은 우리를 우주의 원형적인 이야기와 접촉하도록 만들어 준다. 이 표징들은 원래의 구속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점에서 뿐 아니라, 우리가 그 구속의 사역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본래의 구속 사건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결국 예배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선포이며, 그것을 통해 독특하게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베푸시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갱신이다. 따라서 복음주의자들은 물질의 역할을 부인하는 일부의 잘못된 그노시스파적 경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예배에 있어서의 외적 표현의 정당한 위치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부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물질적 수단(말씀 선포와 성찬 집행)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의미가 전달되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 즉 듣고, 보고, 만져보고, 맛보고 하는 우리의 반응 또한 물질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가 예배의 형식적(물질적) 측면에서 더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도 다 이에 연유한 것이다.<sup>10)</sup>

#### 4. 예배의 신앙적, 선교적, 종말론적 특성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격적 신앙의 표현인 육체적(물질적) 행위들을 통해 세상에 봉사할 준비를 갖춘다. 믿음과 순종이 없는 예배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에 우리가 완전히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만 그리스도를 성부 앞에서 우리의 대표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갈보리에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만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위해 친히 사신 그의 몸인 교회도 성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삶 전체를 개인적으로 드릴 것을 필연적인 결과로 요구한다. 예배는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예배는 세상을 향한 봉사로 표현되어야 한다.

---

10) Ibid, p.16-17.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대상인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표징이 되어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히10:24).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물고 온 사회적 부산물을 감히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피조물 전체의 질서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이 같은 면을 고려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아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종말론적 소망을 기대해야 한다. 특별히, 성찬은 그리스도의 모심과 시대의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한 표징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항상 예배하는 자의 실존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마련이다. 진정한 예배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직면해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항상 공급해 준다.<sup>11)</sup>

## 5. 계시와 응답<sup>12)</sup>

그리스도교 예배의 근거는 신학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 실제적 표현은 확실한 기본원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예배는 계시에 입각한다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에 입각한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응답인 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그가 우리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인간들의 응답이다. 즉 하나님의 자기 폭로인 말씀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 다름 아닌 예배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예배의 중심부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알게 하사 성육과 십자가와 부활로 절정을 이룬,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되기 위하여서는, 예배하는 자의 눈앞에 그리스도교의 계시와 위대한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줌으로써 예배하는 교회가 참회와 감사와 헌신과 찬양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하여야 한다.

---

11) Ibid, p.18.

12) R.압바,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경맹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4, p.14.



## 6. 본질적으로 공동 행위인 예배<sup>13)</sup>

그리스도교 예배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행위라는 것이다. 곧 교회 전체의 행위이다. 예배는 경건한 개개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의 주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공동행위이다. 따라서 개인적 예배는 공동의 예배 곧 주님의 몸인 교회의 예배에 그 근거를 둔다. 그리스도교의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공동적 접근이다. 그것은 가족적인 행동이다. 이 원리는 개혁파 교인들에게 매우 친근한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와 그 존재 이유의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의 공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 7. 예배와 증거<sup>14)</sup>

마지막으로 생각할 원리는 예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의 역사와 증거를 위한 유일하고 적합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교회의 능력의 정도는 교회가 주님과 연합하는 정도에 의하여 측정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세상에서의 저희들의 사명을 수행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효과적인 증거는 끊임없는 예배에 의존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예배가 우리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거나 혹은 만족감을 느끼게 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드느냐, 혹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한 흔적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다”

---

13) Ibid, p.19.

14) Ibid, p.22.

### Ⅲ. 칼빈주의 예배의 원리

#### A. 칼빈주의적 예배의 이해

예배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으로 경배하며, 공동으로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는 예배는 영원자에 대한 피조자의 응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결국 일반적 의미에서의 예배란 경배로서의 예배, 말씀선포로서의 예배, 헌신으로서의 예배, 교제로서의 예배, 새롭게 되는 예배, 문제를 드림으로서의 예배, 생활로서의 예배를 지적하게 된다. 예배에 대한 바른 인식은 사람의 첫째 의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으며,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예배를 받으시며,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된다. 그렇게 때문에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총의 계시가 창조와 구속의 역사 속에 나타났기에 거기에 대한 응답적 행위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신 것과 거기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 대화와 만남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런데, 칼빈주의적 입장에서의 예배의 이해는 위의 것들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칼빈주의적 입장에서의 예배는 다음과 같은 강조점이 있을 수 있겠다. 우선 칼빈주의자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예배의 의미를 찾고 있다. 칼빈은 인간에게서 신의식이 있는데, 이것이 종교의 씨앗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예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칼빈주의 예배 또는 개혁파 교회의 예배 이해는 우선 1542년에 나온 칼빈의 '교회기도의 본'과 1644년의 '공예배에 대한 웨스트민스터 규칙서'가 그 기초가 되는 것이다. 결국 칼빈주의적 예배 이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교회가 축복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공동체로서의 그의 백성이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1. 예배는 만남이다.

예배는 종교적 명상과는 달리하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이룩하신 신비스런 구속을 통해서 인간과 만나도록 하신 것이다.

## 2. 예배는 집단적 만남이다.

예배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기도로써 하나님께 아뢰는 예배행위를 말한다.

## 3. 예배는 규칙을 따라서 하는 집단적 만남이다.

여기서 규칙을 따른다는 것은 예배는 일정한 질서와 규범을 좇아서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배의 질서를 이른바 예배의식이라고 부른다.

## 4.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규칙적이고 집단적인 만남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규칙을 따라서 만나는 것이어야 한다.

## 5.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면서 만남이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는 경건한 두려움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이다.

## 6. 예배는 축복 받은 교회 안에서 만남이다.

예배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네 번 정도 청중들에게 선포된다, 첫째는 예배가 시작될 때 성도들에게 문안의 말씀이 되겠고, 둘째는 죄의 고백에 따른 용서의 말씀이다. 그리고 셋째는 설교시간에 성도들을 위로하며 감화하며, 깨닫도록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교훈의 말씀이다. 넷째는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생활을 하도록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는 축복의 말씀이다.

위와 같은 요소들은 칼빈주의적 교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예배의 한 모습이다.

## B. 칼빈주의적 예배의 특성

우선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예배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칼빈은 예배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과 신학적인 것에 성실하려고 한다. 우선 그는 교회의 모든 실제적인 것들이 철저히 성경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성경이 명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다. 칼빈은 신학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모든 문제들이 언제나 성경원리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모든 참된 예배는 사람들의 욕망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나타내신 계시에 근거해야 할 것을 말했다.

둘째로, 칼빈은 예배의 원리가 신학적으로 명백하다. 예배는 확실해야 할 뿐 아니라, 반드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예배에 있어서 감정적 요소를 부인하지 않았다. 신앙에서와 같이 예배란 전인격적인 행동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적 예배의 특징은 잘 이해되어진 예배여야 할 것을 주장하다.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말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어지럽히는 꼴이 된다”고 하였다.

셋째로, 칼빈에게 있어서 예배신학은 교훈적이다. 예배의식이 교훈적인 것에 기초하고 있다.

넷째로, 칼빈에게 있어서 예배는 단순성에 있다. 특히 칼빈은 성만찬에 있어서 요란한 의식이나 성명 없는 의식을 반대했다. 칼빈은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을 싫어했다.

이상에 본바와 마찬가지로 칼빈의 예배에 대한 태도는 성경 중심으로 보면서 명료성과 단순성, 그리고 교훈적인 것을 원리로 삼았다고 볼 수 있겠다.

### C. 칼빈주의적 예배의 강조점

예배에 있어서 칼빈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엄위로우심을 높이는 일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은 그의 의에 기초를 둔 것이며,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의 예배이다. 그런데 칼빈의 예배에 있어서 강조점은 달리 말하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의 요구에 대해서 인간 편에서의 순종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응답하는 예배의 불가결의 요소는 어떤 것인가?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회의 어떤 집회도 말씀의 설교와 기도와 성만찬의 집행, 헌금의 봉헌 없이는 열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칼빈주의적 예배의 강조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서의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다. 종교개혁당시의 말씀에 대한 의미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때의 말씀 전과의 불길은 성경의 재발견과 때를 맞추어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성경에 대한 새로운 번역의 시도가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말씀 증거의 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되었다. 그래서 전과된 말씀은 성경과 거의 동일 시 되었음으로 개혁교회에서는 성경을 읽는 것과 설교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말씀”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성경을 잘 해석하는 데서 출발했다. 그래서 개혁과적 설교는

강해설교로 특징 지을 수 있으며 이것은 달리 말하면 케그리마적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약시대의 예배가 희생의 예배의 형태가 아니고, 말씀 중심의 예배라면 칼빈주의적 예배는 설교 중심의 설교를 재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칼빈은 루터처럼 성만찬까지도 결국 “말씀의 표”로서 이해하였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임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신앙은 일차적으로 예배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다. 칼빈은 사투레에게 한 대답 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본질인 열망이 없이 인간 자신을 나타내고 인간의 사상을 높이는 것에 한정한다면 이런 신학은 거짓된 신학이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난 것이지 우리 자신들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칼빈주의적 예배에 있어서 기도와 찬송도 하나님께 대한 영광 개념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셋째는, 예배순서의 단순성이다. 칼빈주의적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찬송과 기도다. 그런데 이 둘을 하나로 보았다. 왜냐하면 찬송은 기도의 노래형태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빈 또는 칼빈주의자들은 예배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인위적인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기에 그 예배의 순서는 단순하였던 것이다.

넷째는, 칼빈 또는 칼빈주의자들의 예배의 원리는 언제나 공동체로서의 예배와 예배의식의 조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칼빈은 말씀과 성만찬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의 교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 전파와 성찬식을 겸하려고 애를 썼다.

칼빈주의적이지자 개혁주의 예배의 원리는 인간중심의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강조함으로써 말씀을 통한 은혜의 체험을 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예배이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말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아오신 원리가 강조될 것이며, 이러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에게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IV. 예배의 성경적 고찰

기독교의 예배는 역사적인 예배이다. 역사적인 예배란 시작이 역사 속에 있었으며, 기독교 역사의 오랜 과정 속에서 예배가 성장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예배학의 기본적인 연구는 역사적 이해를 전제해야 하며, 예배의 역사를 살피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를 살피는 것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예배의 역사연구는 교회의 역사적 과정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역시 교회사의 맥락을 따라서 전개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맹목적인 교회사의 추종이라기 보다는 기독교 예배의 역사는 구약 이스라엘의 유대종교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특별히 구약 성경과의 관계를 전제하여 기독교 예배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한다.

### A. 구약시대

#### 1. 족장시대의 예배와 제사

족장시대 제사의 공통성은 재물(짐승)을 피 흘려 죽게 하며, 불 태워 드리는 번제의 행사로서 이루어졌던 예배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전제되면서, 제사행위는 곧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통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15)</sup>

#### 2. 모세 시대의 예배와 제사

모세 시대의 예배는 계명에 따라 한 분 하나님(야훼)을 경배하며, 제사행위를 통하여 속죄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통하는 것이 그 중심이었다.

---

15)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솔로몬, 1993, p.29.



특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토라)에 대한 신뢰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의 임시적이면서도, 예배 생활의 근원이 율례로 제시되었고, 그 계명에 따라 예배하는 생활이 계속되었던 것이다.<sup>16)</sup>

### 3. 이스라엘 왕국시대의 예배와 제사

하나님의 집으로 상징된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은 이미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었지만, 다윗의 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비로소 성전은 건축의 빛을 보게 된다.(왕상 6:1-8:66; 역대하 2:1-8). 이러한 성전 건축의 의미는 구원의 하나님이 이 집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와 제사하며 기도하는 장소이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속죄하는 희생제사 또는 제물을 통한 제사가 그 중심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하며, 그의 은혜에 감사하고 인간의 소원을 드리는 데 있었다. 성전예배의 주도자는 역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다. 그리고 성전예배 때는 시편의 노래와 찬양이 함께 있었으며 성가대와 악기들이 사용되었다.<sup>17)</sup>

### 4. 회당 예배

회당예배가 언제 생겨난 것인지에 대하여 구약역사 연구는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회당의 출현과 함께 유대 종교의 예배는 제물중심에서 토라(Torah)를 중심한 기도중심의 예배로 전환되었다.<sup>18)</sup>

---

16) Ibid, p.30.

17) Ibid, p.31.

18) Ibid, p.35.

## B. 초대교회의 예배

### 1. 초대교회의 예배

실제로 많은 연구가들은 그 어떤 확정적인 것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세례의 행위가 교회의 모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저하게 말씀중심의 예배가 주어졌을 것으로 본다. 그것은 교회의 예배와 선교적 상황에서의 말씀선포와 한계를 지우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고전 14:23-25).

그리고 교회에 정착된 예배는 역시 기도중심의 예배였다고 본다(행4:23-31). 그러나 초대교회 예배의 근본적인 형태는 주님의 만찬을 행하는 모임으로서의 예배였다.<sup>19)</sup>

### 2. 사도 이후의 예배

2세기와 3세기 동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전 삶이 예배하는 일과 직결되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예전적인 행위심은 매주 행하는 성만찬의 축제에 있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생활과 성경낭독을 중심한 정규적인 말씀중심의 예배에 참여와 말씀의 가르침의 집회에 참여하는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sup>20)</sup>

---

19) Ibid, p.53.

20) Ibid, p.68.

## C. 초대교회이후의 예배

### 1. 초기로마교회의 예배

4세기경 로마의 콘스탄틴황제의 기독교로의 개종으로 기독교 예배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는 기독교 예배가 사적인 것에서 공적인 행사로 전환되었다. 또한 국가적 배려로 점점 보편화되고, 공적인 행사로 발전하면서 기독교는 많은 수의 참여와 함께 자체의 세력을 획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방종교의 사상들과 의식들을 쉽게 기독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일상의 언어와 형식과 그 시대적인 은유적 표현으로서의 기도들이 기독교의 예배의 시작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봉헌된 풍미물과 향료와 같은 물질들을 예배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이방신을 섬기던 성역의 장소에서 기독교의 예배가 진행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축제일도 이제는 기독교의 축제일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벌써 기독교의 혼합주의적 경향으로 가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sup>21)</sup>

### 2. 로마 카톨릭교회의 예배

중세교회의 시작인 그레고리 1세 때에 . 예전서에 의하여 예배의 모습이 하나의 완성을 이루었다. 이때 예배의 표준적인 형식으로는 시간의 기도, 유카리스티(만찬), 성례, 그리고 여러 축제이다. 교황 고레고리 3세에 의하여 예전의 형태를 갖추어 사용되어 오다가 16세기경 트리엔트 종교회를 거쳐 1570년경에 교리적 체계를 갖춘 예배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때에 카톨릭 교회의 예배의식이 결정되었으며, 그 당시 발표된 예전서를 미사경본이라 부른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예배의 문제점은 공로 사상, 성례중심주의, 계급주의, 영성주의, 주관주의적인 점 등이다.

---

21) Ibid, p.75.

### 3. 종교개혁과 예배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예전을 미사중심으로 그리고 모든 예전을 성례화 한 것을 비성례화 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에 루터는 먼저 예전의 개혁을 위하여 설교를 개정하였고, 자국어로의 예배 진행과 예배참여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노래와 성찬의 잔을 나누는 개혁을 단행하였다.

루터가 로마교회의 예전을 갱신하기 위하여 설정했던 신학적인 기준은 복음에 의한 창의적 가르침이었다. 즉 루터는 예배의 순서에서 말씀중심의 예배와 성찬중심의 예전을 하나의 예배로 연결시키고 있다.<sup>22)</sup>

쯔빙글리는 설교중심의 예배에 역점을 두었고, 설교는 성경 안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앙의 원천으로 인도하는 것과, 그것을 통하여 효력있는 종교교육의 작업을 뒷받침해야 하는 것을 생각했다. 그리고 쯔빙글리는 루터처럼 성례를 은혜의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겠다.

예배의 성찬을 더 이상 희생제물이 아니라, 골고다에 이루신 구속의 은혜의 사건을 기억하는, 즉 항상 상기해야 하는 일로 충분하다고 여겼다.<sup>23)</sup>

칼빈을 미사중심의 예배를 설교중심의 예배를 진행시켰으며, 루터처럼 말씀과 성찬이 함께 어우러지는 예배를 희망했다.<sup>24)</sup>

### 4. 영국 잉글리칸 교회의 예배

영국 교회의 예배는 로마 카톨릭의 전통적인 미사중심의 예배에서 벗어나 말씀중심의 예배로 전환하였고, 성찬은 월 1회씩 거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입교식도 일년에 3번씩 하도록 규정하다.<sup>25)</sup>

---

22) Ibid, p.92

23) Ibid, p.95.

24) Ibid, p.98.

25) Ibid, p.101.

## 5. 근세교회의 기독교 예배

서구의 근세시대는 정통주의와 경건주의 그리고 합리주의 또는 계몽주의 사상이 교차하면서 기독교 사상의 발전과 예배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시대에 예배의 특징으로는 먼저 정통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형성된 예배의 법적인 이해이다. 정통주의는 예배의 형식적인 보존과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예배의 내적인 생동력을 잃어버린 시대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향에 비하여 경건주의는 교회의 정통주의적인 모습을 피하고 기독교 예배의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노력하게 되었다. 즉 예배의 중심에 다시금 설교를 세우고 설교의 부흥시대를 탄생시킨 것이다. 그 결과 경건주의는 확실한 순서에 의존된 예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예배순서의 의식적인 면보다 더 자유로운 예배형식을 추구하였다. 그런 후에 다시 합리주의는 정통주의나 경건주의와는 달리 예배의 의미를 가르침의 수단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예배는 말씀에 의한 가르침을 듣기 위한 것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된다. 이에 따라 합리주의는 예전의 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예전의 형태조차도 간과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된다.<sup>26)</sup>

## 6. 서구 개신교 예배와 현재

슬라이어막허에 따르면 기독교 예배는 표현되고, 묘사되는 의미의 전달이며, 공동체가 함께 생각하고 느끼는 기독교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묘사로 설명된다. 즉 예배의 실제에서는 강하게 자극된 종교적인 자의식(믿음을 뜻함)이 약한 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란 종교적인 감정들의 공동적 영역에서 나아와 개체적이며, 종교적인 신앙적 표현을 들어냄으로 이해하게 된다.<sup>27)</sup>

---

26) Ibid, p.103.

27) Ibid, p.107.

## V. 한국교회 예배 고찰

### A. 한국 교회 예배의 성격

한국 교회의 예배는 사경회 혹은 부흥회 집회 식의 예배가 그대로 정착된 것이라고 흔히 말한다. 그것은 예배에 평신도가 기도한다거나 예배 진행에 있어서 예전의 부분이 적은가 하면, 예배 진행자의 개인적인 인도에 예배가 많이 좌우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러하거나와 지나치게 설교중심의 예배라는 점에서 그리하며, 전체적인 예배의 성격과 분위기도 그러하다.

한국 교회가 성례는 자주 행하지 않으면서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려 왔기 때문에, 교인들은 예배 드리기는 것은 곧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로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예전의 순서는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 행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갖게 되는 경건심과 은혜를 받았다는 충족감은 그 날의 설교가 좋았느냐에 좌우된다.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 경향으로 치닫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이후였다. 감독 정치 제도를 가진 감리교회는 물론, 장로교회도 교구 제도적 교회로 성장해 왔었는데, 1950년대 이후 교회의 분열로 인하여 교세 확장 경쟁이 시작되고, 6.25 동란으로 인하여 생겨나게 된 무지역 노회가 생겨나면서 교구 제도적인 교회제도가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각 지역의 개 교회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으며, 많은 교회들이 대교회를 지향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말미암아, 그리고 기업이나 시장의 대형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의 추세에 따라,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대교회는 필연적으로 개교회주의를 지향하거나 유발하게 되는 것인데, 교회가 대교회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유능한 설교자를 가지는 것이었다. 예전과 설교, 또한 설교와 성례의 균형을 갖추지 못한 예배로 말미암아 교인들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 의식을 가지기 보다는 좋은 설교를 찾아서 쉽게 교회를 옮기는 이기적인 교인들이 되었다.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회중교회 유형의 대교회들이 설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자주 행하고 예전과 설교가 균형을 이루는 예배를 지향해야 한다.<sup>28)</sup>

## B. 한국교회 예배 실제의 세 유형<sup>29)</sup>

### 1. 전통적인 교회의 예배 유형

#### a. 설교중심의 예배(장로교회)

전통적인 한국교회의 예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설교를 중심한 예배가 지배적이다. 그러한 유형은 장로교회의 전형적인 예배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다만 장로교에서만 일관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가는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이라고 하겠다(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설교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 예배참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다. 그리고 장로교회의 설교중심의 예배는 역시 강한 교육적인 의도를 반영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다.

#### b. 성찬을 잊고 있는 예배

한국교회 예배 유형에는 성찬이 병행되지 못하는 설교중심의 예배가 그 중심을 이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칼빈의 종교개혁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한국 장로교회는 아직도 말씀과 성찬이 균형을 이루는 예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예배를 설교 하나만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쾰빙글리의 제안하였던 연4차례도 두 번으로 감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국장로교회의 예배는 성찬을 거의 잊어버린 교회로 평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8) 김영재, 『교회와 예배』, 수원: 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p.65.

29) 정일용, "한국교회 예배유형 연구",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서원, 1993년 2월호.

### c. 성직(인도)자 중심의 예배

전통적인 교회들의 설교중심 예배는 역시 인도자 중심의 예배로 특징 지워진다. 물론 예배는 인도자(성직자)에 의하여 준비되고, 인도하는 성직자에게 부여된 목회의 중심적인 직분에 속한 일이다. 그리고 올바른 예배를 제시하고 예배의 실재를 돌보는 책임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하여 예배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성직자 중심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의 공동성을 견지하지 못하는 점이다. 크게로는 예배의 공동성이 상실돼 간다고 할 것이다. 즉 예배인도자의 일방적인 주도 아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신도들의 예배에서의 역할이 수동적인데서 더욱 그것을 발견된다.

### d. 은사 경험을 중심한 예배(오순절 예배)

오순절 교회는 원래 역사적인 오순절 성령운동의 재현을 강조하면서 시작된 기독교의 한 종파운동이라 하겠다. 오순절 교회는 성령의 은사운동을 강조하며, 성령충만과 성령세례 받기를 강조한다, 특히 개인적인 은사의 체험과 은사의 소유를 강조하는 것이 신앙의 특징이다.

그 때문에 오순절 교회의 예배는 성령의 경험을 가시화 하는 예배로 특징 지워진다. 예배에서의 언어사용을 비롯하여 성령에 대한 언급이 집중되며, 성령의 임재에 대한 간구가 중심을 이룰 뿐 아니라, 직접 예전의 순서 가운데 성령 은사의 역사를 간구하며, 방언 사용과 특히 병자들의 치유를 위한 성령 사역을 순서를 예배에서 행하게 된다. 예배 중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서 즉흥적인 기도가 행해지며, 통성으로서 합심기도와 공중기도가 행해진다. 방언은 성령세례를 받은 증거로 보며,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며, 병자를 위하여 기도한다. 예배중에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며, 설교는 개방적이었으나 나중에 자격있는 자가 하도록 규정되었다.

이러한 유형의 예배는 언제나 성령의 임재와 경험을 목적으로 하는 예배를 보여준다. 성령의 주관적인 경험을 갖도록 분위기 조성, 감동적인 순간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예배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 2. 선교적 차원에서 시도되는 문화유형적인 예배

현재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화유형적 예배로는 먼저 예술인, 연예인, 체육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는 선교적 차원에서의 문화 유형적인 예배를 들 수 있다. 또 우리는 군사 문화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예배형태로서 군인 교회의 예배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직장인들의 예배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학원의 문화적 환경에서 실천되는 예배유형으로서 기독교 학교들의 예배나 한국의 각 대학 내에서 현재 드리고 있는 기독교 씨클 형태의 예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우리의 전통적인 교회론에서는 설명하기가 힘든 한국교회의 선교적 상황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다양한 예배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도시의 문화적 환경에 나타나는 예배의 변화

도시의 문화적 환경에 나타나는 예배의 변화로는 교회들이 취하고 있는 여러 차례의 주일예배의 반복적인 유형에서 볼 수 있는데, 많은 수의 회중을 하나의 예배 공간에 일시에 수용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주로 대형교회들이 취하는 예배의 형태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주일 시간을 더 효과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의미를 제공해 준다.

## 4. 음악을 중심한 예배의 새로운 시도

예배에서의 음악의 사용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느끼게 하는 도구가 음악이다. 그리고 예배에서 부르는 찬송은 노래부름을 통하여 역시 신앙을 표현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멜로디와 시적인 내용의 조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며, 동시에 계시에 응답하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게 된다. 그 때문에 예배에서의 음악을 통한 노래부름과 악기의 사용은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도 일찍이 주일의 공예배에서 찬송 부름과 성가대를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왔으며, 오늘날 예배 음악과 성가대의 사용,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예배의 형태는 새롭게 발전되고 있다. 벌써 오래 전에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은 찬양예배로 명명하여 음악을 중심한 예배가 실천되어 왔으며, 70년대부터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이 사용한 복음송이 한국교회에 전해지면서 부분적으로는 한국교회의 예배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회중들로 하여금 쉽게감성적으로 마음을 움직임으로써 그것이 곧 성령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한 증거로 동일 시 한다면 역시 문제가 될 것이다.

## VI. 빈야드 예배 분석

### A. 빈야드 운동이란?

최근에 "제3의 물결" "빈야드 운동" 혹은 "토론토 축복"이라 불려지는 운동 등이 있는데 그것들이 "빈야드"라고 불리는 이유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애나 하임(Anaheim, California)에 있는 "빈야드교회 (Vineyard Christian Fellowship)"를 이끄는 존 워버 (John Wimber)를 비롯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단체가 "빈야드 교회 연합(Association of Vineyard churches)"으로서 일종의 교단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고, "토론토 축복"이라고 한 이유는 존 아노트 (John Arnott)가 개척한 "토론토 공항 교회 (Toronto Airport Vineyard)"를 중심으로 일어난 현상에 대하여 그렇게 불리워졌다.

여기서 빈야드 운동을 성령의 능력을 특히 강조하는데 권능주의와 성령체험의 감정적 요소를 강조하는 감정주의의 두 관점이 강조되는데 존 워버는 권능주의적이고 존 아노트는 감정주의적인 면이 강했다.

존 워버의 권능주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면서 성령의 은사로서 병자를 치유한다든지, 귀신을 내어쫓는다든지 또는 지식의 말씀을 사용해서 전도하는 것을 주장했고, 토론토의 존 아노트는 신앙 체험에 있어서 감정을 대단히 중요시했다.

존 아노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감정으로 해석하고 로맨스(romance) 감정(emotion) 느낌(feeling)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그는 온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감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말에서 그의 신상을 입증하고 있다.

## B. 빈야드 운동의 문제점들

### 1. 성령과 그 사역에 대한 이해가 치우쳐 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기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사명과 필요에 따라서 주시게 되는데, 빈야드 운동에서는 초자연적인 은사들과 능력을 신비현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신비현상을 강조하게 되면 성경적인 성령의 역사가 약화되어져서 결국에는 열광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 2. 비성경적 혐오감 유발을 한다.

빈야드 운동이 사람들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것은 떨림, 쓰러짐, 거룩한 웃음 등의 현상이다.

짐승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정당화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한 계시록5:5 에서 하나님이 사자같이 부르짖으신다고 표현하고 에스겔 1:28과 다니엘 8:17을 인용해서 에스겔과 다니엘의 쓰러짐을 말하고 있으며, 또는 창 17:7 에서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웃음을 통해 거룩한 웃음으로 집회분위기를 이끌고 가는데 이런 것이 비성경의 그리고 신비적인 감정을 유발하도록 한다.

### 3. 예배를 무질서하게 만든다.

그들의 예배는 형식에 얽매어 역동성을 상실한 예배를 자유롭고 무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힘쓴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들은 예배순서에 의해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따라 예배의 시작은 있으나 끝나는 시간이 없다.

전문 찬양사역 인도자 7~8명이 기타나 드럼, 키보드 등으로 회중을 이끌고 복장도 자유스러우며 온갖 율동과 제스처를 다 쓰며 기존의 종교적 형식을 완전 탈피해 버린다.

이런 예배의 무질서는 결국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들 (Text) 이라기 보다는 자신들의 목회경험속에서 나오는 목회철학으로써 (Context) 그렇게 진행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빈야드의 종교적 형식으로부터의 탈피는 그 자체가 상황의 산물이지 결코 모든 상황을 초월한 절대적 대안은 될 수가 없다.

빈야드 운동의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 목회자들이 성급하게 예배스타일을 빈야드 화함으로 현재 교회에 교인들이 떠나고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는데도 아직도 기존 예배형식이 비성경적이고 반성령적이라며 빈야드예배형태를 도입하고 고수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빈야드 운동은 성령과 그 사역에 빠져들며 여러 가지 짐승의 소리들을 정당화함으로써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빗나가 무질서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방법은 예배의 바람직하지 않는 방법이 되므로 목회자들은 빈야드 형식의 예배를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드려지는 것을 삼가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VII. 열린 예배에 대하여

### A. 구도자 예배란 무엇인가

#### 1. 열린 예배의 기원<sup>30)</sup>

구도자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교회는 미국에 있다. 하나는 월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새들백 교회이다. 이 두 교회는 구도자를 중심으로 한 목회 철학과 전략을 가지고 발전, 성장한 대표적인 교회이다. 남가주에 있는 새들백 교회는 세워진 연도가 월로우 크릭보다는 약간 뒤이지만 담임목사인 릭 워렌(Rick Warren)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시작된 교회로서, 월로우 크릭 교회 못지 않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교회이다.

구도자예배는 월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목사인 빌 하이벨스(Bill Hybeis)에 의해서 처음 구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이벨스 목사는 적은 수의 학생들이 교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계획하면서 교회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다. 그의 주요 목회 대상이 되는 사람들. 즉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도자(Seeker)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월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교회는 계속 자라게 된 것이다.

#### 2. 구도자예배의 성경적 근거

신명기 26장 10-1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하신다.

---

30) 김만형, “구도자예배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서원, 1997년 4월호, 제94권.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은 가나안 족속을 말하며, 이는 이방인을 가리킨다.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때부터 구도자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라는 것이다. 로마서 15장 9-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잠재적인 예배자로 보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사도행전 10장 34-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도 그를 경건하게 경외하는 자들을 부르신다고 말하고 있다.

진정 예배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모습들을 검토해 봤을 때 성경에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개방된, 그들이 쉽게 와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드는 예배를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 3. 구도자예배의 특징들

구도자들 지향하고 사역하는 교회들이 구도자예배를 디자인하면서 염두에 두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구도자예배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다.

먼저는 사회학적 조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들의 필요를 먼저 파악하고 예배의 많은 기능들을 첨가했다는 것이다. 음악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나, 드라마나 비디오를 사용하는 것들이다.

다음은 예배가 정확하고도 세밀하게 기획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예배 중에 환희와 기쁨, 축하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음악선택을 아주 신중히 하는 것이다. 현대음악을 많이 사용하면서 영적으로 고갈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그대로 노래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가사도 새롭게 쓰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 음악에 있어서 스타일이 아주 자유롭다.

다음은 예배 진행과 흐름에 상당히 민감하다. 순서와 순서 사이 중간중간에 지루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을 많이 가입한다.

다음은 말씀을 나누는 설교시간에 상당한 비중을 두되, 이 말씀을 접근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드라마나 비디오로 필요에 따라 접근한다. 다음은 전체적인 분위기이다. 조명은 온화하고, 음향은 듣기에 편하도록 신경을 쓰고, 좌석도 편리하게 되어 있다. 실내온도라든지 화분의 위등도 아주 섬세하게 놓여있는 것도 발견하게 된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전력을 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것은 무엇이고, 냉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늘 처음 교회에 나온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본다.

## B. 열린 예배의 신학적 이해와 영성<sup>31)</sup>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상황화 또는 문맥화의 결과라고 본다. 즉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선포되고 기록되고 전승되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인들의 문화적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인들의 문화적 전제들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신학적 이해로 구도자예배는 '상황화' 또는 '문맥화'의 원리를 활용한 형태이다.

또한 '성육신'은 계시와 역사의 본질로 본다, 성육신은 성경 전체가 증거하는 진리이다. 성육신은 구원의 내용이며, 동시에 구원의 방법이다. 즉, 성육신은 복음의 내용이며, 동시에 복음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사람되심'의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는 복음의 본질적 진리인데, 이 진리가 전달될 때도 역시 '성육신적인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구도자예배'의 영성이다. 구도자예배의 영성은 '성육신'에서 찾아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비그리스도인의 언어와 몸짓을 사용하고 영적인 어른이 영적인 아이가 기뻐할 언어와 몸짓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몸소 실천하려는 영성인 것이다. 영성의 극치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성육신으로 극적으로 표현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성육신은 고통이었다. 하나님이 스스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오시기 위하여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이다. 만약 현대문학을 사용하되, 사용하는 사람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라면 문제의 초점이 달라진다.

31) 문동학, "열린예배의 신학적 이해와 영성",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서원, 1997년 4월호, 제94권.



## C. 구도자예배의 미국적 배경<sup>32)</sup>

많은 찬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의 구도자예배는 교회 활성화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 효과는 대단하다. 이 구도자예배는 교회성장을 막는 두 가지 요인인 물리적 경계와 감정적 경계를 제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 경계이다. 요즘 한국의 예배개신을 보면, 감정적 경계보다는 물리적 경계의 제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미국의 구도자예배는 감정적 경계의 제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미국교회의 감정적 경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세속화에 대해 알아야 한다.

첫째, 절대적 세속성이다. 볼테르와 막스 등의 학자들이 학문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여 기독교의 대체요소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절대적인 세속적 환경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린다.

둘째, 부분적 세속성이다. 영국적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하나님과 교회는 공격당하지 않는다. 단지 매일의 삶과 세상 속에서 무시당할 뿐이다.

셋째, 통제된 세속성이다. 미국적 스타일로 세속화에 지배당하는 것이다. 미국정신, 리더스 다이제스트와 같은 차원으로 기독교가 이해되고 있다. 개혁자 정신이 강한 미국에서는 모든 권위와 전통이 평준화되고야 만다.

미국에서의 구도자예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의 세속성 가운데 '통제된 세속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세속화에 지배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세속화이다. 다시 말해서 세속화를 외면하고서, 이들의 현재의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세속화의 특징은 모든 권위를 수평화하는 힘에 있다. 미국 세속화의 핵심이 '수평화하는 힘'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바로 자신에게 수평화 되지 않는 권위는 인정하지 않게 하였다. 미국인들은 이 수평화가 되지 않으면 대화의 본론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미국은 교회가 교인들 혹은 지역인들의 복장에 신경을 써야 한다. 미국인은 개성을 인정하고 인정되기를 원하지만, 어떠한 차별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문화가 또는 설교자와 성가대의 복장이 자신들과 구별되지 않을 때, 일치감을 느끼게 된다.

---

32) 김기영, "미국교회의 구도자예배의 현황과 흐름",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서원.

1997년 4월호, 제94권.

그렇다면 미국의 목회자들이 설교시 청바지에 노 타이 복장을 하는 것과 교회의 탈 전통은 설교자와 교회, 인간의 전통과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권위를 무너뜨리고 낮추어서 구도자들과 자신과의 감정적 경계를 제거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한국교회의 경우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 경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 D. 윌로우 크릭교회의 구도자예배

윌로우 크릭교회에서의 구도자 중심 예배는 첫째, 예배의 바탕에 깔려있는 전제성이다. 곧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예배의 구도를 짜는 것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인식하지 않는다. 그 참석자들을 곧 성경지식 혹은 교회나 예배경험이 없는 자로 간주하여 예배를 준비한다. 설교 가운데 기독교적인 언어는 금물이다. 예를 들면 구원, 구속, 십자가, 성화, 헌금, 설교, 기도 등의 기독교적 단어를 회피하며, 이러한 단어들을 불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한다.

둘째, 불신자들이 세상의 영화관이나 음악회에서 느낄 수 있는 최상의 환경과 분위기, 특별히 최상의 내역에 수준을 둔다.

셋째, 불신자들의 삶에 밀접한 내용들로 가득 차게 한다.

넷째, 예배의 순서는 보통 15-20분의 찬양으로 시작하되 가사가 앞에 비춰진다. 공연하는 것처럼 관람하는 식으로 잘 준비된 수십명의 찬양팀과 악기들이 동원된다. 이후 사회자가 나와 청중들을 환영하며 모든 예배는 관람자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으므로 헌금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며, 오직 본교회 교인들만 헌금해 달라도 당부함으로 간단한 광고를 마친다. 조명으로 분위기가 바뀌며 메시지를 위한 준비단계로 독창이나 연극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들은 메시지 중 해답을 들을 수 있는 질문 유도적인 것들이다. 약 20분에서 30분 소요하며 불신자의 구원초청은 없다. 좀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친구의 인도에 따라 접견실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 모든 예배가 마친다. 물론 멋진 음악이 계속 울려 퍼지면서 예배의 전과 후에는 항상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마련되어 있고, 편안한 휴게실 등이 준비되어 있다. 주차장 안내자의 완벽한 준비로 불편 없게 빠져나가도록 인도한다..

이토록 윌로우 크릭의 구도자중심 예배는 이들이 행여 한가지라도 교회나 예배에서 소외감이나 불편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sup>33)</sup>

33) 이영호, "구도자 예배의 현장을 가다",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외서원, 1997년 4월호, 제94권.

## E. 구도자예배가 가진 예배적 약점<sup>34)</sup>

구도자예배는 회중의 참여를 유도하는 '드리는' 예배보다는 '보여주는' 예배가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예배형식으로부터 일탈하려는 흐름은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교회의 자기 몸부림이지만, 적어도 신학적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한 두 가지 고려해야 할 측면이 없지 않다.

첫째로, 이런 형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의 숫적 성장 둔화 현상을 극복하고 신세대들에게 신앙적 관심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예배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 일반적 흐름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관심에서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자들을 위한 배려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보다 참되게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바른 예배'에 대한 동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회중'에게 더 흥미로운 예배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오늘날 설교에 있어서도 본문(Text)에 대한 관심보다는 상황(Context)에 대한 관심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가리워지고 있는데, 예배형식에 있어서도 이런 현상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회중들은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보다는 예배를 '본다'는 의식이 강하다. 결국 예배 형식의 변화라는 것이 자칫 보는 즐거움을 더하는 '우리의 방식'의 예배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두 번째로는 형식의 변화가 내용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이다. 내용의 변질만 없다면 형식을 고정화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은 형식 그 자체가 때로는 내용을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변질이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 그리고 보여주는 예배로 전략할 위험성이다.

셋째로는 미국형 구도자예배가 한국 정서에 저항감을 줄 수도 있는 점이다. 미국 교회는 다양한 예배형식들을 경험해왔다는 점이다. 미국 교회 안에는 다양한 형식의 예배 스타일이 상존하고 있고, 개별성을 중요시하는 미국인의 정서로는 이런 특별한 예배형식들이 오히려 호감이 가는 것이다.

---

34) 이상규 외, "구도자예배가 가진 예배의 약점", 『목회와 신학』, 서울: 두란노서원, 1997년 4월호, 제 94권

반면 한국교회의 경우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나 오순절 계통이나 예배형식에 큰 차이가 없다. 지금까지 거의 획일화된 예배 스타일을 경험해왔고, 따라서 '예배' 하면 일반화된 형식이 그려진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국인의 의식 가운데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려는 정서도 한몫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인의 의식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넷째로는 미국교회 안에 구도자예배, 말하자면 예배형식의 파괴라고 볼 수 있는 변화들이 있지만 동시에 젊은이들 사이에도 전통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현상이 뚜렷이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문제는 '의미를 상실한 형식'에 있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를 상실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도자예배가 식상해진 예배 스타일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형식으로 이해된다면 위험천만한 일이다. 적어도 구도자예배가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예배의 의미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점에서라야 예배의 의미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점에서라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도자예배를 왜 드리는지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 선행 되어야 한다.

여섯째로는 구도자예배는 그 출발이 불신자들을 향한 복음전도에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대체로 불신자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에 열심이었고,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같은 전도에 대한 의식 속에서 구도자예배를 도입, 교회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더 많이 모아들이겠다고 의도한다면 예배에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구도자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교회가 '복음화' 마인드로 충분히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일곱 번째로는 구도자예배는 신학에 따르기보다는 인기에 부합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하려는 시장개념을 따르는 실수를 범할 우려가 많다. 예배는 우리 모두 참여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오직 우리의 예배를 관람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런데 구도자예배는 참석자들의 취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하나님보다는 예배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까에 더 관심이 많다. 이것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뀐 것에 해당한다.

여덟 번째로는 구도자예배가 참으로 구도자예배가 되려면 젊은이 이외의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배이어야 한다. 구도자예배가 어느 특정한 한 세대만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문화적으로 닫힌 것이다. 세대간 계층간 모두에게 열려있는 것이어야 한다.

## VIII. 성경이 말하는 예배 <sup>35)</sup>

성경에서 예배를 '절하다'는 뜻과 '섬기다'는 뜻을 가진 말로 표현된다. 구약성경은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을 잘 분별하여서 예배할 것을 말하며, 참 하나님께는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것은 십계명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언약을 주시면서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 첫째 계명부터 셋째 계명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그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고 그에게 경배해야 하며 하나님을 거룩이 여기라는 말씀이다(출20:3-7)

그러나 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성향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지 않은 이방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역시 그러한 성향을 그들의 역사에서 노출한 것이다(왕하17:37-40, 사1:11-17).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나 살아 계신 참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나 어울리는 예배를 드린 것이었다. 저급한 무당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하듯이, 섬김의 삶이 없이, 윤리적인 삶이 없이 맹목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복을 비를 예배를 드린 것이다. 그것은 참 하나님께 합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한 예배이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신들이 마땅히 할 바를 행하지 못하였고 또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한 죄인임을 발견한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큰 대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의 제사종교와 성전 종교가 종결되었으므로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히 4:16).

그러나 본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느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었음을 알고 감사하여야 한다.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고백할 줄도 모르고 사죄의 은총을 감사할 줄도 모른다.

---

35) 김영재, "성경이 말하는 예배", 『빛과 소금』, 서울: 두란노서원, 1992년 7월호(통권88호).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죄를 고백하는 마음과 사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줄어드는 한편 축복을 비는 간구가 늘어나면 우리의 예배는 무당종교의 예배로 전락되어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자신들이 부정한 죄인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자신들이 왜소함을 인식하며,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알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작아질 때,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사람들만이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함께 찬양함을 인식해야 한다.(시19:1).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경배하는 모든 피조물과 화답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온 땅에 통하는”, 감동적인 합창과 웅대한 교향악의 연주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 공동체의 남녀노소,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감동과 의의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이 지키라고 말씀하신다(출20:8-11).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신 계명이다. 안식일을 거룩이 여기는 목적은 하나님을 거룩이 여기며 그에게 예배하고 그가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도시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레 중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며 안식일로, 즉 예배하는 날로 지켜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교회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을 어린양과 같이 제물로 주셔서 구원의 주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감동시켜 믿게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참으로 깨달아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서면 순간부터 감격하며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떠들썩하게 소리를 지르기보다는 침묵하며, 마음이 들뜨기 보다는 차분하고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뿐이다, 따라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우리는 그에게 마땅히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예배에서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한다.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날을 주시고 그 날을 축복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는 온 회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대로 아론의 기도를 따라서 혹은 바울의 축복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빈다. “여호와께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민6:25-26).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지어다”(고후13:13)하는 기도로 축도 한다.

이토록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구원의 주요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신령과 진정으로) 다하여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 IX. 결 론

### A. 요약

우리 시대의 저명한 문학평론가 한 분은 우리 모두가 '새것 콤플렉스'에 걸려 있다고 진단한 적이 있었다. 무엇이든 '새것'이면 사족을 못쓰는 철없음을 나무란 것이다. 그래서 무턱대고 새 차, 새 TV, 새 교회당, 새 건물, 등 온통 '새것'에 대한 찬사뿐이다. '새것이 좋다'거나 '새것이라야 신선한 맛이 난다'는 주장이나 이론만큼 어리석거나 위험한 것은 없다. 종교학 또는 선교학의 배경에서 예를 들어보자, 신종교 내지 유사 종교 또는 사이비 종교들이 가장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론이 '기성 종교는 낡았다', '기성 종교는 이제 구원이 없다', '새로 출발하는 우리(조직)에게 구원이 있다'등이다.

한국에서도 '새것'을 찾는 바람이 불고 있다. 흔히 열린 예배(Seeker's Service, 일명 구도자예배)라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기존의 예배 형식을 과격적으로 바꾸어서 현대적 문화요소를 도입한 열린 예배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속속 시행되고 있다.

열린 예배는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의 윌로우 크릭커뮤니티교회, 새들백 벨리커뮤니티교회 등 미국교회에서 시작된 예배 형태이다. 전통적인 예배의 틀을 벗어나 현대적인 문화요소를 접목시켜 지루하지 않은 축제와 같은 예배를 지향한다. 메시지를 제시하는 수단으로서 드라마, 멀키비전 영상, 토크교, 리드미컬한 밴드 연주, 마임, 만화프레이즈 등 시선을 끌 수 있는 요소들을 그야말로 예배 곳곳에 첨가해서 참석자들이 딴 곳에 시선을 팔지 않도록 한다.

예배가 언제 시작되고 끝났는지도 알 수 없고, 누가 사회자인지도 알쏭달쏭한 그야말로 프리(free)한 예배이다. 온누리교회, 예수촌교회, 사랑의 교회 등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세대를 중심으로 제법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 열린 예배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나 비판 없이, 무작정 유행에 편승하듯 어설픈 모방에만 급급했던 것이 한국교회의 자세가 아니었나 싶다. 물론 기존의 예배 스타일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이 열린 예배는 그 긍정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더 지적한다면, 첫째로 즐기기 위한 예배는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오늘 열린 예배론자들은 예배자들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보다 예배하는 관중(참석자)을 더 의식하고 잘 모시려고 한다. 누가 누구를 예배하며,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섬김을 받고 있는가, 참석자가 섬김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즐기는 예배인가, 참석자가 즐기는 예배인가. 칼빈이 예배의 엄숙함의 당위성을 지적했거니와 시대와 환경이 바뀌었다 해도 제사(sacrifice)로서의 예배의 의미를 그 속에 충분히 담아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교회사가인 Stanford Reid가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인가?”라고 말했던 바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대로 “신령과 진정으로(In spirit and in truth) 드리는 예배인지 통찰해 보아야 한다.

둘째, 보는, 보여주는 예배는 비교리화(undogmatize: 반교리화 혹은 무교리화)의 예배와 비교리적 삶의 시대를 열고 있다. 예배형식의 지나친 파괴, 급진성, 프로그램 위주화는 결국 우리 - 신자와 청소년, 초신자를 모두 포함하여- 의 ‘하나님 이해’에 악 영향을 준다. 즉 하나님 이해의 변질화가 초래될 수 있다. 매시자의 전달을 매체에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주관적인 하나님 관념이 생겨나고, 가시적인(비디오, 춤, 음악, 무대장치 등) 하나님의 상상화에 치우칠 위험성이 많다.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의 최대 동기가 올바른 하나님 이해의 성경적 회복과 성경적 예배의 회복(만인 제사장직)이 아니었던가?

셋째, 매체 자체에 대한 검증이 있었는가의 문제이다. 흔히 열린 예배에서 예배시작을 알리는 음악으로 사용되는 재즈음악이나 영화음악이 과연 ‘예배’에 적합한 음악인가 하는 것이다. 재즈라는 음악이 품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우리의 예배가 과연 조화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뉴에이지 음악이 만연한 영화음악을 여과 없이 예배에 사용할 위험성이 없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근본적으로 목적을 위한 수단인 모든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이 대두된다.

넷째. 이중(二重)예배의 부담이다. 열린 예배는 기본적으로 초신자를 위한 예배이기 때문에 기존 신자들 -신앙이 성숙한 신자들-이 열린 예배의 쉽고 단편적인 그리고 짧은 설교만으로 충분한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분명히 기존 신자들은 열린 예배의 설교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깊은 말씀이 있는 또 다른 이중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예배가 몇 부(部)로 드러지는 대형교회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일이지만, 중소교회는 실행이 어려운 일이다. 또한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한 열린 예배를 중소교회는 매주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는 대형교회들도 모든 예배를 열린 예배로 드리기보다는 토요일이나 주일예배 중 한두 부를 열린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한 차례 드리는 중소교회가 기존의 주일예배를 열린 예배로 바꾼다면 그 교회의 말씀의 권위와 깊이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모든 종교에는 예배가 있다. 기독교도 예배의 종교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다른 종교의 예배 행위와 같은 것이 아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며, 성경의 계시에 기초한 예배이다. 그러나 타종교의 예배는 인간의 편의와 욕구충족을 위해서 행하여지는 행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시한대로 속죄의 제물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예배인가 아니면 인간의 자기방식과 생각대로의 예배인가는 인류역사가 두고두고 논쟁점이 되어 왔다. '인본주의 예배'나 아니면 '신본주의 예배'냐의 갈림길이다. 개혁교회의 예배는 구약과 신약, 회당과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의 예배개혁을 이어 내려오는 전통적인 예배이다.

이상으로 열린 예배와 전통적인 개혁파의 예배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열린 예배는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를 대치할 수 없는 상당히 회의적인 결론이 도출 될 수밖에 없는 성경적, 신학적 문제와 우리의 삶에 동반되어야 하는 밑받침이 되지 못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열린 예배는 예배라 칭할 수 없다.

## B. 제언

좁은 소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끊임없이 '새것'을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지상에 새것은 없다.

형식적이거나 인위적으로 새것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인간의 본능이다. 선민 이스라엘이 조상 아브라함이 물려준 '여호와 신앙'의 모양새가 너무 단조롭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늘 주변 이방 나라나 민족들이 갖고 있는 화려한 종교의 모양새를 부러워하였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의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진리(텍스트)를 상황(컨텍스트)속으로 전이, 적응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오히려 진리가 소홀히 대접받고 상황이 복음의 고삐를 쥐는 이상한 현상으로 전개시켰다. 우리 한국교회에 예배의 형식마저 유행이란 시류를 타기 시작한다면 앞으로는 도대체 어떤 기상천외한 형태나 스타일이 또 창작되어져야 할까? 한동안 은사운동, 성령운동 바람이 태풍처럼 불더니. 이어서 '빈야드 운동'이라고 하는 이상한 바람이 한국교회 예배 전통을 흔들며 대고 있다. 형식과 모양이 문제가 있거나 모자라서 한국교회가 '예배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4장 23-24절,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성령님께 대한 의존과 순종심만이 예배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사소하게 형식과 절차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자세를 날마다 말씀과 성령님 앞에서 개혁해 나가는 자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이의용,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예배”, 『빛과 소금』, 두란노서원, 1992
2. 손인웅, “예전적 예배를 회복한다”, 『월간 목회』, 월간목회사, 1998
3.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규장, 1998
4. 김영재, 『교회와 예배』, 합동신학교출판부, 1995
5. R. 압바저, 허경맹 역,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대한기독교서회, 1964
6.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솔로몬, 1993
7. J.s. Whlae, What is a Living Church?
8. Webber. Robert. E, 김지찬 역, 『예배학』, 생명의 말씀사, 1988
9. 정일웅, “한국교회 예배유형 연구”, 『목회와 신학』, 두란노서원, 1993
10. 김만형, “구도자 예배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두란노서원, 1997.
11. 문동학, “열린 예배의 신학적 이해와 영성”, 『목회와 신학』, 두란노서원, 1997
12. 김기영, “미국교회의 구도자 예배의 현황과 흐름”, 『목회와 신학』, 두란노서원, 1997
13. 이영호, “구도자 예배의 현장을 가다”, 『목회와 신학』, 두란노서원, 1997
14. 이상규외, “구도자 예배가 가진 예배의 약점”, 『목회와 신학』, 두란노서원, 1997
15. 김영재, “성경이 말하는 예배”, 『빛과 소금』, 두란노서원, 1992
16. 릅 워렌 저, 김현희, 박경범 역, “새들백 교회이야기”, 디모데, 1999
17. 빌 하이벨스, “윌로우 크릭교회 이야기”, 두란노서원
18. 에드담슨, “열린예배 실습 보고서”, 흥성사
19. 김병삼, “열린예배? 현대예배?”, 프리셉트, 2000